

GS3기 노동경제 장선구 교수 강의계획서



강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및 박사 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현) 2020년 1학기 성균관대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강의 중 현) 한국경제학회 종신회원 현) 프라임 법학원, 노무사, 행정고시 전임 e-mail) sunkujang@hanmail.net 유튜브채널) 경제학짱박사 다음카페) 포인트노동경제학
강의 일정 및 강 의 실	■ 일시 : 6/20(토)~7/25(토), 총6회 ■ 시험 : 18:30~20:10(100점/100분) ■ 강의 : 20:25~22:00 ■ 강의실 : 프라임 합격관(신성초등학교 맞은편)
강의 교재	■ 노동경제학연습(2020년 초판, 장선구 편저, 비앤엠북스刊) ■ 노동경제학 요약정리(2020년 초판, 장선구 편저, 비앤엠북스刊)

강의목표

『출제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새로운 유형에 적응하는 앞서가는 강의』

1. 첫날부터 바로 실전과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실전형 연습

이 수업은 첫날부터 시험을 봅니다. 3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험을 보고 실전과 같이 시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앞의 문제는 잘 쓰고 뒤의 문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GS3기에서는 이러시면 안됩니다. 언제나 실전과 같은 심정으로 시험에 임한다는 맘가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간과 그래프의 안배와 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를 어떻게 풀어서 답안지에 써 내려가는가가 핵심입니다.

2. 다년간 채점의 경험을 통한 첨삭지도와 최신 경향 반영

지금까지 많은 유명대학에서 많은 강의와 성적처리(채점)를 경험삼아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리하스와 에렌버그 책의 연습문제에서 **꼭 풀어보아야 하는 문제를 선별하여 문제 풀이 해결책에 대한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노동경제학의 출제 경향이 서서히 바뀌는 추세이고, 이러한 경향을 지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 젊은 교수님들이 해외 원서를 많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도 약간씩 **전형적인 이론과 개념 문제와 응용사례(계산문제)가 혼합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결코 두렵거나 어려운 것인 아니라 공부하는데 **더 부담을 줄여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서에 나와있는 최신 문제 중에서 좋은 것 만을 일부 선별해서 풀어드리거나 시간이 없으면 자료로 나누어 줄 예정이오니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3. 실전에서 고득점 : 노력은 반으로 줄이고 점수는 2배로!

많은 노무사 수험생들에게 듣는 이야기는 다른 선택하는 과목들은 내용이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해 만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같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그러한 예상치 못한 ‘짱돌(불의타)’ 문제가 등장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다른 선택과목은 공부 분량이 매우 방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은 200년이란 세월 속에 체계적으로 축적된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간단한 그래프와 목적함수와 제약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하고, 답안내용도 매우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목을 소화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노동경제학은 **공부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점수는 2배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의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4.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 보충!

수업시간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지엽적이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유튜브(경제학짱박사 채널)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를 통해서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일 동차생분이거나 선별을 통한 집중을 하려는 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해도 됩니다. ^^

강의특징

1. 강의 스타일

※ 기본적인 강의 방식은 실전과 같은 시험을 보고, 이를 설명하며 교재의 내용에서 Part3의 내용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장선구 노동경제학 교재 활용). 또한 꼭 풀어보아야 할 약속형 서술형 문제의 접근 방법을 소개 합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간략하게 서술할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원자를 중심으로 대면첨삭을 확대하여 직접 이해도를 점검할 예정이고, 점수는 객관적으로 부여하여 실전에서 유사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깔끔한 판서와 내용 전개

노동경제학은 2차 시험으로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고 어떻게 자신이 알고 있는가를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시험 준비생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노동경제학의 **내용과 그래프를 무조건 암기해서 페이지를 채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노동경제학은 단순한 단어의 나열, 그리고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무작정 x축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시험을 채점하는 교수님께 별로 어필하지 못합니다.** 채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프레임과 노동정책의 현실적인 적용과 응용이 잘 버무려지는 답안을 원합니다. 따라서 깔끔한 답안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깔끔한 답안작성은 깔끔한 노트필기와 체계적인 강사의 판서에 그 힘을 받아 발현**될 수 있습니다.

강사의 특징은 숲을 바라보듯이 문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나무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꼼꼼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맥을 잡아 풀어나가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2) 기계적인 경제학 그래프 훈련과 응용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만큼 간단한 수요공급 곡선을 시작으로 **최적화 개념이 담긴 노동공급곡선과 이윤극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노동수요곡선의 상호 융합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앵무새에게 박사학위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토픽을 설정한다고 하면 바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래프는 바로 두 축의 주인공인 수요와 공급의 배우가 등장이란 무대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탱고를 혼자서 출수 없듯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쪽의 two-side approach**를 해야 합니다. 경제학이 체계적이고 많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 간단한 그래프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쓰지 못할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공부할 때는 뿌듯하지만 막상 시험 볼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단순화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심플하게 접근해서 끝낼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실천적인 학문으로서의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노동정책(labor policy)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접근해야 합니다. 노동경제학은 신문의 경제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 규범적인 측면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최신 노동경제학회나 연구자들의 연구관심사와 노동시장의 이슈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4)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의 설명

GS강의를 차근차근 따라온 수험생들은 기본적인 내용과 그래프는 쉽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답안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GS3기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응용과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의 자잘한 내용을 문제로도 내고 이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 강의와 연계 공부 방법

(1) 실전 모의고사 필수

모두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은 답안작성을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암기한 것을 쓰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할지 고민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페이지에 담아내 버리고 나면 뭔가 더 쓸 내용과 풀어나갈 내용이 소진됩니다.

따라서 **큰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하고, 이를 직접 답안지에 구현하는 **고되고 반복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뭐..**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문제 풀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왕도 !**

(2) 암기보다는 물 흐르듯이 플로우로 접근

노동경제학은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그 내용을 미시적으로 풀어나간 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정책이 사회전체적인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내용을 언급해야 합니다.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삶의 질을 윤곽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노동경제정책이기 때문입니다.

(3) 답안에는 말, 그래프, 간단한 수식이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고득점

경제학에 기반을 둔 현실적인 내용의 노동경제학은 3위 일체라고 할 수 있는 말로 설명, 그래프로 설명, 수식으로 설명이라는 3가지 각도에서 접근해서 답안지에 쏟아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와 모형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프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쉽고 간편하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밀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잘난체”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약간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에 이상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여주는 “수식”을 사랑한답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래프나 말로 설명하면 시간과 비용, 트래픽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약속된 수식을 이용하면 동일한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소통

제가 운영하는 노동경제학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바로 ~ “포인트 노동경제학”

<http://cafe.daum.net/pointlaboreconomics>입니다. 여기에 노동경제학과 관련된 최근 이슈와 내용, 논문, 노경 선택자들의 합격수기들을 추가로 올려두겠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대상

노경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분량을 줄여주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수험준비생들에게는 노동경제학이 축복의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과목과는 달리 암기보다는 이해를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써 나가는것을 좋아하는 분
- 마무리 정리 시간이 부족할 때, 노경의 틀과 핵심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과목에 매진하려는 분
- 암기를 정말정말 싫어하는 분 (노경도 암기이지만 몸으로 암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틀을 중심으로 최적화란 목적식과 제약식을 잘 고려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글 솜씨가 아주 뛰어나지 않은 분들은 다른 선택과목을 택했을 경우 암기한 표현과 내용 이외의 것을 풀어서 연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은 법학과 같이 논리적이고 꼭 필요한 내용만 잘 담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거기다가 최신 노동시장과 정책의 동향과 개인의 의견을 더하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진도표

회차	주말	수업 내용	기타
1회	6/20(토)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노동시장균형과 노동이동 보상임금격차 인적자본과 유인급여 노동시장차별과 노동조합 실업과 필립스 곡선 및 기타 노동경제학 이슈	시험있음 시험범위는 전범위
2회	6/27(토)		
3회	7/4(토)		
4회	7/11(토)		
5회	7/18(토)		
6회	7/25(토)		

- 강사 개인 e-mail : sunkujang@hanmail.net
- (참고) 시험은 반드시 교재를 보지 않고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노동경제학 공식 카페 : <http://cafe.daum.net/pointlaboreconomics>